

한국인 무치악 환자의 상악 전치부 인공 치아의 폭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 윤선영

총의치 보철 수복시 저작, 발음, 및 심미성 회복은 환자의 생물학적인 요소 및 생체역학, 미적 감각에 맞춰, 개개인의 심미적 기능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발치전 모형이나 사진, 방사선 사진, 발거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인공치아 선택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판단과 경험에 의해 주로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치를 선택할 때는 크기, 형태, 색조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그중, 총의치의 인공 전치 크기는 골 흡수나 악간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lip support를 비롯하여 심미성, 발음,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발치전 기록이 없는 경우 재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동안 총의치의 전치부 인공치아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이용 되어 왔다.

첫째, Interzygomatic arch width의 1/16을 상악 중절치의 폭으로 선택하는 방법,
둘째, Interala width를 intercaninetip distance로 선택하는 방법,
셋째, mouth corner 간의 거리를 canine distal에서 canine distal의 폭으로 선택하는 방법등이 소개되어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정상 성인 한국인에서의 발치전 평균치와 비교해 그 신빙성을 검증해 보고자, 20-60대 성인 sample 3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해서, 각 악궁 type (tapered, ovoid, squared) 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Sample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p < 0.05$), 악궁 type에서는 ovoid type의 두번째 방법과 squared type의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05$)

실험 결과 interala width와 canine tip간의 상관 관계가 ovoid type과 squared type에서 유의성이 있으므로 치아 크기를 선택할때는 이를 이용하고, tapered type에서는 interala width에서 평균 2mm를 뺀 수치를 canine tip간의 거리로 이용하는 것이 임상에서 가장 유용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